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현황분석

- 오키 구미죽도역사관에 대하여 -

金 到 闇*

(e-mail : Kim30ms@hanmail.net)

<목 차>

- | | |
|------------------------|---------------------------------|
| 1. 서론 | 2.4. 고 야와타 이사부로(故八幡伊三郎)씨 일지와 기타 |
| 2. 구미죽도역사관의 운영현황 | 3. 구미죽도역사관에 대한 운영상의 모순점 |
| 2.1. 지도와 항공사진에 대한 현황검토 | 4. 결론 |
| 2.2. 어업허가자의 변천과정-1 | |
| 2.3. 어업허가자의 변천과정-2 | |

キーワード : 시마네현(Simanehyeon), 오키(Oki), 구미죽도역사관(Kumizukdo History hall), 지도(Map), 어업허가자(Fishermen), 운영(Operation), 인광석(a phosphate rock), 채굴권(mineral rights)

1. 서론

일본 시마네현 죽도자료실(島根縣竹島資料室)은 웹홈페이지(Web竹島問題研究所, Web Takeshima issue Research)를 만들어 죽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과거에도 한국 땅이고 한국섬인 독도를 한국 땅으로 보고 있지 않고, 시마네현과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대내외에 자료를 조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일본의 대내외 홍보 자료관으로서 우선 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오키향토관, 오키 구미죽도역사관¹⁾, 시마네현 산인역사관, 요나고 시립도서관, 돗토리 현립 박물관 등이 있다.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원

1) 본 논문은 2016년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먼저 총서로 게재하게 되어, 이번에 논문으로 게재한바가 없어서 수정, 보완해서 작성하였음.

그리고 한국에 존재하는 한국 땅인 독도 자료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자료실 및 독도체험관, 경상북도 사이버독도, 울릉군 독도박물관등이 있다.

2016년 7월경 필자는 독도와 관련된 일본 시마네현 자료관 등지로 답사²⁾를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들 자료관내 특히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자료 조작과 발언 등을 현지에서 직접보고 체험하면서 죽도문제연구회 연구자들의 조작된 자료를 비치한 자료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이러한 계획된 자료를 자료관을 만들어 전시했다는 점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에 위배 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독도와 관련한 시마네현의 자료관 가운데 2016년 6월1일 개관한 오키섬 구미죽도역사관의 운영 현황³⁾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구미죽도역사관의 운영 현황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隱岐の島町) 구미지역에서 ‘구미죽도역사관’인 자료관 건립이 작년 완공되어 2016년 5월29일 공개 행사가 열렸다.⁴⁾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명분하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2016년 6월1일 그것을 개관하였다.

이 구미죽도역사관은 목조 단층건물이고, 넓이는 165㎡로 되어있다. 자료열람 코너와 교육·교류·조사실 등을 갖추고 있고, 사무실 앞 단상에는 방명록 및 소감을 적는 노트도 비치되어 있었다. 당시 사용했던 작은 배의 모형과 배의 제작 설계도가 한 개인의 기증품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이 자료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에 활용되고, 이번 자료관 공개 행사에는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라는 내각부 정무관 등 60명이 참석하였다.

“독도에 대한 증언과 자료 수집 외에도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널리 알려

2) 2016년 일본 시마네현 답사한 주요 자료관으로는 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오키 향토관, 구미 죽도역사관, 요나고 산인역사관, 요나고 시립도서관(독도관련 고지도), 돗토리 현립박물관, 아카사키(일한 우호자료관) 등이다.

3) 金到閏(2017)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조작의 실태분석」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76-78

4) 2016년 6월29일, 산케이(産経)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대한 여론 확산을 목표로 건립됐다. 오키노시마초에 따르면 구미 지구는 2차 대전 전 독도 주변에서의 어업과 강치 잡이 등의 거점이었다. 자료수집관은 또 영토 문제에 관한 전시·계발 시설의 건립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키노시마초의 마츠다 가즈(松田和久)총장은 "과거 독도에서 어업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도 노인이 돼 이 상태로는 독도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증언을 후세에 이어나가기 위한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⁵⁾

오키 구미죽도역사관 개관식 모습과 내각부 정무관의 연설 모습이 사이트⁶⁾에 소개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주도하에 역사관을 개관하고 있다.

2.1. 지도와 상공사진에 대한 현황검토⁷⁾

구미죽도역사관의 내부에는 왼쪽 한 벽면에 독도에 관한 사진이 한 벽면을 전부 차지할 정도로 크게 프린팅 되어 걸려있다. 그 안에는 독도사진이 크게 프린팅 되어 있고, 왼쪽 윗부분의 문구에는 「내각관방,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죽도」⁸⁾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일본은 계획적인 정부 주도하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여기에는 독도에 관한 지도가 3장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 2개의 지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놓고 있다.

다음의 지도는 죽도의 인광석 채굴권의 광구도(등본)에 관한 내용이다.

【첫 공개】 ■죽도의 인광석 채굴권의 광구도(등본)

※원본은 중국경제산업국자원 에너지환경부자원·연료과 (히로시마시) 소장

이 자료는, 히로시마시에 있는 중국경제산업국자원 에너지 환경부자원·연료과 소장의 『광업원박』에 있는 죽도의 인광석 채굴권의 「광구도」 등본입니다. 광업법에서는 광업권에는, 시굴권과 채굴권의 2종류가 있습니다. 채굴권은 광물의 존재와 채굴의 가치가 분명해 진 것에 대하여 본격적인 채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 「광구도」는 채굴권 출원할 때에 첨부된 것으로 채굴권이 설정되어, 「채굴현원부(採掘現原簿)」에 기재되면 광구도는 「광구도 수첩」에 첩해 넣어 「채굴원부(採掘原簿)」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죽도의 인광석의 채굴권 「광구도」가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광구도」는 시굴권의 「광구도(鉞区図)」와 마찬가지로 축척(縮尺)은 5000분이 1

5) 【서울=뉴시스】 일본, "독도는 일본 땅" 자료관 완공식에 내각부 정무관 파견, 등록 일시 [2016-05-29 17:43:16] http://www.dg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85279

6) http://search.yahoo.co.jp/search;_ylt=A2RhYNMguiFYKTUAK5qJBtF7?p=www

7) 金到闇(2017)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조작의 실태분석」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79-83

8) 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Coordination on Territory and Sovereignty

이고, 그림의 왼쪽에는, 방위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구계의 범위도, 시굴권의 「광구도」와 마찬가지로 강치의 서식지를 빼고 설정되고 있습니다. 광구의 범위를 나타낸 선의 각도는 시굴권의 「광구도」와 비교하면 변경되고 있는 것부터 다시 측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는 「사이(間)」가 아니라, 「미터」표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광구도」의 오른쪽 아래에는 출원자인 도쿄 세타야쿠(世田谷区)의 쓰지 도미조(辻富藏)씨(대표자), 시가현 이누카미군 다가초(犬上郡 多賀町)의 안고 소시치(安居忽七)씨, 오사카시 스미요시쿠(大阪市 住吉区)의 다무라 히사시(田村寿)씨의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3명은 1946년12월27일 양도계약에 의해 죽도의 인광석의 시굴권을 취득했습니다. 1949년1월12일, 대표자 쓰지 도미조(辻富藏)씨는 히로시마 통상산업국에 죽도의 인광채굴권을 제출했습니다. 채굴권은 1954년3월29일에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54년에는 죽도에서는 한국 측에 의해 불법점거로 인해 섬에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인광석의 채굴은 실시할 수 없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죽도의 인광석의 채굴권은 현재도 수도권 거주자 1명이 계승하고 있고, 감면(減免)중이고, 시마네현은 광구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유권분쟁의 관점에서는 외국에 점거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도 자국의 영토로서의 취급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권행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어도 제도상은 행정권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측이 실력지배하고 죽도에 다가갈 수 없다고 말하며, 죽도의 어업권의 설정과 더불어 죽도의 인광석의 채굴권의 설정은 우리나라에 의한 국가권능의 발현(發現), 실효적 지배 계속의 예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죽도의 인광석 채굴권의 광구도는 일본 혼슈(本州)의 추고쿠지방(中國地方)의 추고쿠(中國)경제 산업국자원 에너지 환경부자원·연료과(히로시마시)소장 자료인데, 이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계획된 목적 하에 지도를 만들어 자료를 준비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독도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 2장(죽도 상공에서 찍은 사진(1),(2))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독도(죽도) 하늘에서 찍은 사진(1)] 산케이(産経)신문사 제공

1953년12월19일 촬영. 바로 앞이 서도(西島(男島)), 뒤쪽이 동도(東島(女島)). 오른쪽 아래에는 산케이경제신문사의 소류고(双竜号)의 날개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54년1월1일의 산케이경제신문 오사카(大阪) 본사판 10면에 게재되어 있는 것 외에, 다무라 세이사부로(田村清三郎,1955): 『시마네현 죽도연구』, 시마네현 총무부(総務部広報) 문서과(文書課) 및 田村清三郎(1965): 『시마네현 죽도신연구』,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독도(죽도) 하늘에서 찍은 사진(2)] 산케이(産経)신문사 제공

1953년12월19일 촬영. 바로 앞이 동도(東島(女島)), 뒤쪽이 서도(西島(男島)). 2015년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관계자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동도

를 보면, 1954년 동도 정상에 한국 측이 불법설치한 등대가 비추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공에서 찍은 사진 (1)의 명칭에서는 동도를 일명 여자 섬, 서도는 남자 섬 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 러시아가 이 말을 사용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은 이 단어를 지금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독도 상공사진(2)은 사진(1)과 같은 연도에 촬영되었고, 1954년 동도 정상에 한국 측이 불법설치한 등대가 비추고 있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섬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중의 하나라고 역지를 내세워 독도를 침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2.2. 어업허가자의 변천과정-1⁹⁾

오키의 구미죽도역사관에는 독도(죽도)의 강치 어업허가자의 변천(1955년까지)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한국은 1945년8월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일본은 패망한 그날 이후로도 한국의 섬인 독도에 여전히 들어와 1905년 이후 어로활동을 해온 대로 태연히 어로 활동을 하면서 어업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한 도표와 어업허가증의 해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1) 죽도의 강치 어업허가자의 변천 [1955년까지]

번호	감찰 발행 연월일	어업허가자	어업 시기	선박	허가기간	비고
1	1905년 6월5일	스기군 사이고초 오아자 니시마치 (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가토 주조(加藤重藏)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오치군 고카무라 오아자 구미 (穩地郡五箇村大字久見) 하시오카 유지로(橋岡友次郎)			3년 (1905년6 월~1908년 5월)	1906년4월30일, 죽도어업합자 회사대표사원 나카이 요자부 로, 전용어업면허원을 신청→ 각하. 1907년6월27일 이구치 류타, 권리를 포기.

9) 金到闇(2017)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조작의 실태분석」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83-87

번호	감찰 발행 연월일	어업허가자	어업 시기	선박	허가기간	비고
2	1907년 9월10일	스키군 사이고초 오야자 니시마치 (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 나카이 요자부로 외2명 (스키군 사이고초 오야자 니시마치 가토 주조) (오치군 고카무라 오야자 구미 하시오카 유지로)			3년 (1907년6 월~1911년 5월)	1907년5월13일, 사이고초 오야 자 니시마치의 니시마치 어업 조합 이사 마쓰자키 미사부로 (松崎實三郎), 죽도땅선편입을 신청→각하. 1907년5월20일, 고카무라 오야 자 구미의 구미어업조합 이사 이케다 요시타로(池田吉太郎), 죽도땅선편입, 및 죽도해면전용 어업면허원을 신청→각하.
3	1910년	스키군 사이고초 오야자 니시마치 (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 가토 주조 오치군 고카무라 오야자 구미 하시오카 유지로	5월~ 8월		5년 (1911년6 월~1916년 5월)	
4	1915년	스키군 사이고초 오야자 니시마치 (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 가토 주조 이구치 류타 오치군 고카무라 오야자 구미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	5월~ 8월		5년 (1916년6 월~1921년 5월)	1913년4월27일, 하시오카 유지 로 사망. 1915년4월30일, 나카이 요자부 로, 어업권을 장남 요이치에게 계승.
5	1920년 5월5일	스키군 사이고초 오야자 니시마치 (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 나카이 요이치 (스키군 사이고초 오야자 니시마치 가토 주조) (오치군 고카무라 오야자 구미 하시오카 다다시게)	5월~ 8월	일본형 어선 1척	5년 (1921년6 월~1926년 5월)	1920년4월, 강치 어업허가원을 신청. 1921년4월 시마네현 어업단속 규칙 개정예 따라, 허가해면에 있어서 해조개류의 채취를 강 치 어업권자에게 허용. 1924년11월24일, 나카이 요이 치, 어업권을 야와타 조시로(八 幡長四郎)·이케다 고이치(池田 幸一)·하시오카 다다시게에게 매각(단, 감찰명의로는 나카이 요이치에게 둔다).
6	1925년	스키군 사이고초 오야자 니시마치 (周吉郡西郷町大字西町) 나카이 요이치 (오치군 고카무라 오야자 구미 하시오카 다다시게)			5년 (1921년6 월~1926년 5월)	1925년 이전에 가토 주조 사망. 1929년1월14일, 나카이 요이 치, 어업권을 야와타 조시로에게 매각
7	1929년 1월21일	오치군 고카무라 오야자 구미 (穩地郡五箇村大字久見) 야와타 조시로 이케다 고이치 하시오카 다다시게	2월 1일 11월 1일	발동기 선가이 후쿠마 루(海福 丸)8톤 15마력1 척	5년 (1929년1 월~1934년 1월)	

번호	감찰발행연월일	어업허가자	어업시기	선박	허가기간	비고
8	1934년 1월20일	오치군 고카무라 오아자 구미 (穩地郡五箇村大字久見) 야와타 조시로 외2명 이케다 고이치 하시오카 다다시게	2월 1일~ 11월 30일	美喜丸4 톤10마 력1척	1934년1월 20일~1939 년1월19일	석유발동기선 미키마루(美喜丸)
9	1939년	오치군 고카무라 오아자 구미 (穩地郡五箇村大字久見) 야와타 조시로 이케다 고이치 하시오카 다다시게				
10	1943년 11월2일	오치군 고카무라 오아자 구미 (穩地郡五箇村大字久見) 야와타 조시로 외2명 이케다 고이치 하시오카 다다시게	2월 1일~ 11월 30일	神福丸 13톤39 마력1척	1943년11 월12일~ 1948년11 월30일	발동기선 제10 신부쿠마루(神福丸) 1945년6월9일, 이케다 고이치 사망. 1949년4월11일, 야와타 조시로 사망.
11	1953년 6월10일	오치군 고카무라 오아자 구미 (穩地郡五箇村大字久見) 하시오카 다다시게 야와타 가즈마(八幡數馬) 이케다 고이치	2월 1일~ 12월 31일	新興丸627 톤세미디 찰판20 마력	1953년6월 10일~1955 년12월31 일	신코마루(新興丸)

- ※ 어업허가자 가운데, 괄호는 「어업허가원」 등의 자료에 의해 보충했다.
- ※ 어업허가자 가운데, 진한 글자의 것은 구미지구 거주자를 나타낸다.
- ※ 어업허가자 가운데, 1929년부터 1943년의 「이케다 고이치」는 오류.

이러한 일본의 어업허가 변천과정은 1905년부터 1955년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어업시기도 5월-8월, 2월-12월사이라는 두 차례에 걸쳐 행하였고, 감찰발행 연월일, 어업허가자의 주소 및 명단과 선박사항, 어업허가기간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두고 있다. 이 가운데 감찰발행 연월일을 보면 ‘1905년 6월, 1907년 9월, 1910년, 1915년, 1920년 5월, 1925년, 1929년 1월, 1934년 1월, 1939년, 1943년 11월, 1953년 6월’로 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식민지시기에 가장 많은 어업 활동을 했고, 패망이 된 1945년 이후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몰래 들어와 불법적인 어업활동을 했는데, 이는 일본이 아직도 식민지시기의 영토침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던 시기에, 독도의 풍부한 해산자원을 독식하였고, 그 해산자원의 고갈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많은 해산자원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갖고 갔다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된다.

(표2) <죽도의 강치어업 감찰·허가증 해설>

어업감찰이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는 면허증, 허가증을 가리킵니다. 죽도의 강치어업은 시마네현 어업단속규칙을 기초로 하여, 시마네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감찰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죽도에 대하여 시마네현지사가 행정권을 행사한 증거의 하나가 됩니다.

현존하고 있는 감찰 및 허가증(복사)은, 1920년, 1929년, 1934년, 1943년, 1953년의 5장입니다. 1924년11월에, 죽도어업합자회사의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가 죽도의 강치 어업권을 구미의 야와타 조시로(八幡長四郎)·이케다 고이치(池田幸市)·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에게 매각한 것부터, 매각전의 1921년 이후의 감찰, 허가증이 남아있습니다.

감찰에는, 결면에 감찰번호, 허가자의 이름(대표자만의 기재가 많다), 감찰 대상이 되는 어획물(강치), 감찰 발행년월일, 발행자(시마네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허가사항으로서, 어장(죽도연해), 어획물의 종류(강치), 어업시기(다이쇼기까지는 5월부터 8월, 쇼와 초기는 2월부터 11월), 선박의 종류 및 척수(다이쇼기까지는 일본형어선=범선에 관한 것, 쇼와초기는 발동기선1척), 종업원의 인원수(쇼와초기에는 8명), 허가기간(메이지기는 3년, 메이지말기이후는 5년)이 있고, 죽도에서의 강치어업의 한 단서가 됩니다.

표에 있는바와 같이, 죽도에서의 강치어업이 허가되는, 전후의 집령기를 빼고, 1905년부터 1965년까지, 구미지구의 어민이 죽도의 강치어업의 허가자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3년부터는 어업법에 근거하여 죽도의 강치 이외의 어업(미역, 돌, 우뭇가사리, 전복, 소라, 해삼, 문어, 성계어업)에 대하여, 시마네현 지사는, 오키섬(隱岐島)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죽도 공동어업권면허를 교부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시기 독도에 강치가 풍부했기 때문에 시마네현지사가 행정권을 행사하여 어업감찰을 교부하여 어업단속규칙을 만들어 두었다. 이는 독도 강치가 일본인들의 어업경제 산업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어업법이라는 근거를 만들어 두면서까지 한국영토인 독도를 주장하며 패망이후에도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3) <어업 허가자 계보 해설>

1905년 이전의 구미지구(久見地區)의 어민에 의한 랑코(リャンコ(현재의 죽도(竹島))어업은, 1898년대, 이시하시 마쓰타로(石橋松太郎), 하시오카 도모지

로(橋岡友次郎)(가게이름(屋号):가시마야(加島屋))들에 의해 시행되어졌습니다. 당시의 죽도어업의 사업자금은,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큰형에 해당하는 이케다 요시타로(池田吉太郎(가게이름(屋号):오나카(大仲)))가 제공한 것 외에, 구미마을(久見村)의 20명의 동료가 조달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905년 죽도에서의 강치 사냥이 시마네현의 허가어업이 되자, 사이코(西郷)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정부에게 죽도 영토 편입원을 제출한 인물)를 중심으로, 구미의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들 함께 4명이 죽도에서의 강치사냥의 허가어업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를 대표로한 죽도어렵합자회사가 설립되자, 구미의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들은 그 사원이 되었습니다.

1924년에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장남인 요이치(養一)는, 죽도의 강치 어업허가의 권리를, 구미의 야와타 조시로(八幡長四郎)·이케다 고이치(池田幸市)·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에게 매각했습니다만, 강치 어업의 감찰명의로는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에는, 나카이 요이치는 죽도의 강치어업권을 구미의 야와타 조시로(가게이름(屋号):오쿠나카(奥中))에게 매각하고, 죽도의 강치허가어업의 권리는 구미의 3집안(池田·橋岡·八幡)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 권리는 점령 중 일단 도중에 끊어지면서, 1953년부터 1955년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토편입전의 랑코섬(リャンコ島(현재의 죽도)어업에 출자한 이케다 요시타로(池田吉太郎)(장남), 랑코섬(リャンコ島)어업에 종사한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삼남), 1929년에 죽도의 강치허가어업의 권리를 구입한 야와타 조시로(八幡長四郎)(사남)은, 이케다 요시타로(池田吉太郎)를 장남으로 한 형제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미지구의 어민에 의한 죽도의 강치 어업의 권리는, 이케다 요시타로(池田吉太郎)를 중심으로하는 이케다가(池田家(大仲)), 하시오카가(橋岡家(加島屋)), 야와타가(八幡家(奥中))의 3집안에 의하여 유지, 계승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1905년 독도(죽도)에서 강치잡이를 ‘허가어업’으로 인정해주어 사이코(西郷)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구미의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등 4명이 독도(죽도) 허가어업자가 되어, 독도(죽도)어렵합자회사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이들은 그 후 독도(죽도)의 강치 어업허가 권리를 오키 구미 지역 어부들에게 매각, 계승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지속적으로 강치 잡이를 한 행적과 인명 등의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시기에 일어난 어업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료제시로서 패망이후에는 식민지 시기의 모든 권리는 원래의 국가에 귀속된다고 국제법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불법 어업 활동임을 나타내는 자료제시라고 볼 수 있다.

2.3 어업허가자의 변천과정-210)

독도의 해산자원 가운데, 강치의 자원이 아주 풍부한 것을 알았던 일본인은 강치에 대한 감찰허가사항과, 어업감찰권을 받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 <죽도 강치어업허가자의 변천>이라고 하여, 1920년, 1929년, 1934년, 1943년, 1953년 어업감찰 사항과 어업허가증을 보이고 있다.

죽도 강치어업허가자의 변천②

어업 감찰 확대 그림형상

(표4) 1920년

허가사항	
一. 어 장	죽도 연안바다
一. 어획물의 종류	강치
一. 어업 시기	시작 5월~종료 8월
一. 선박종류 및 대수	일본형 어선1척
一. 종업자·인원수	
一. 허가 기간	5년
一. 조건 또는 제한	주의= 어업을 종사할 때는 본 감찰을 휴대해야 한다.
9제153호	
슈키즈군 사이코초(周吉郡 西郷町)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	
강치 어업감찰	
1926년 5월 5일	시마네현(島根県)

(표5) 1929년

허가사항	
一. 어 장	죽도 주위
一. 어획물·종류	강치
一. 어업 시기	시작 2월 1일 종료 11월30일
一. 선박종류및대수	발동기선 가이후쿠마루(発動機船 海福丸) 8톤5마력1척
一. 종업자·인원수	8명
一. 허가기간	5년
一. 조건 또는 제한	주의= 어업을 종사할 때는 본 감찰을 휴대해야 한다.
4제18호	
오치군 고카무라 오아자구미 야와타 조시로(隠地郡五箇村大丁久見 八幡長四郎)	
동 주소	이케다 고이치 (全所 池田幸一)
동 주소	하시오카 다다시게(全所 橋岡忠重)
강치 어업 감찰	
1929년 1월21일	시마네현(島根県)

10) 金到閻(2017)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조작의 실태분석」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88-95

(표6) 1934년

허가사항	
一. 어 장	죽도 주위
一. 어획물·종류	강치
一. 어업 시기	시작 2월 1일
	종료 1월30일
一. 선박종류 및 대수	석유발동기선 1척 미키마루(美喜丸) 4톤 10마력
一. 종업자·인원수	8명
一. 허가기간	년
	시작 1934년1월20일
	종료 1935년1월19일
一. 조건 또는 제한 (주의= 어업을 종사할 때는 본 감찰을 휴대해야 한다.)	
9제 10 호 오치군 고카무라 오아자구미(總地郡五箇村大丁久見) 야하타 조시로(八幡長四郎)	
강치 어업 감찰 1934년 1월20일 시마네현(島根県)	

(표7) 1943년

허가사항	
一. 어 장	죽도 주위
一. 어획물의 종류	강치
一. 어업 시기	시작 2월 1일
	종료 11월10일
一. 선박의 종류 動載 및 대수	1대 179마력
一. 종업자 인원수	8명
一. 허가기간	시작 1943년11월10일
	종료 1948년11월30일
一. 조건 또는 제한 주의= 어업을 종사할 때는 본 감찰을 휴대해야 한다.	
18제 다445호 주소 오치군 고카무라 오아자구미(總地郡五箇村大丁久見) 성명 야와타 조시로(八幡長四郎)	
강치 어업 감찰 1943년 11월12일 시마네현(島根県)	

(표8) 1953년

매제 2456 호	
어업 허가증	
시마네현	오치군 고카무라오아자구미(纒地郡五箇村大丁久見) 274번지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
동	274번지
	야와타 가즈마(八幡殺馬)
동	274번지
	이케다 구니유키(池田邦津)
-----	대표자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 -----
一 어업 명칭	강치 수렵업
二 조업 구역	북위37 경9분 30초, 동경131 경35분에 있다. 독도땅 앞바다
三 어획물 종류	강치
四 조업 기간	시작 2월 1일 종료 12월 30일
五 허가 기간	시작 1953년(쇼와28년) 6월 10일 종료 1975년(쇼와30년) 12월 31일
六 선 박	
1 선 명	신코마루(新興丸)
2 어선 등록 번호	SN2— 589
3 선박 총 톤 수	6톤 27
4 추진기관의 종류 및 마력	세미디젤기관 20마력
5 부속 선	없음
七 제한 또는 조건	조업종료와 동시에 어획고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53년 6월 10일	
시 마 네 현 지 사	

이와 같이 일본은 독도의 풍부한 해산자원을 채취하도록 허가를 하는 서류(감찰허가사항과, 어업감찰권, 어업허가증 등)를 발급하였고, 또한 어로와 조업 활동에 대한 증거자료로 어획고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점령시기인 1920년, 1929년, 1934년, 1943년의 조업활동과 그 이후 1953년 어업감찰 사항과, 어업허가증이 전시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일본은 독도의 풍부한 해산자원을 보유

하고자 하는 영토야욕의 속셈을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알리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미죽도역사관에는 「죽도·오키에서 사용한 소형배 「강코」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죽도에는 강치사냥과 나기(주름)물고기를 사냥하였고, 죽도에 매회 3척 운반선으로 운반되었다고 한다.

【독도·오키에서 사용한 소형배 「강코」 모형】

긴부소(오키노시마초 도고 간베이(金峰莊(隱岐の島町 東郷神米))기증

구미의 배 목수·어부였던 하마다 쇼타로씨(浜田正太郎, 1912~1976)가 만든 소형 배 「강코」 모형입니다. 배의 실물은 삼나무제품입니다. 모형은 노송나무(히노키)제품입니다. 하마다(浜田)씨 제작인 「강코」는 뒤에 타면 앞이 뜨고 앞으로 나아가서, 평판이 좋은 「강코」이고, 배(섬) 뒤쪽만이 아니라, 배(섬) 앞쪽에서도 주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도에서는 강치사냥이라든가 나기(번데기, 주름)물고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죽도에는 매회 3대 운반선으로 운반되었습니다. 1968년(쇼와43)년에 사이코(西郷)지구에서, 여관 긴부소(金峰莊)를 창업한, 1969, 1970년(쇼와44, 45년)경 배 모양을 한 그릇에 생선회를 담은 것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일찍이 만든 「강코」를 복원한 것으로, 20년 정도 전까지 여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도에 강치가 풍부하다는 것은 오키 구미에서도 이러한 배를 만들어 강치잡이를 하여 상업이라는 경제사업 활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의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냥해 갔는지 이러한 자료와 증거를 보면서 알 수 있다.

2.4. 고 야와타 이사부로(故八幡伊三郎)씨 일지와 기타11)

오키 구미죽도역사관에는 고 야와타 이사부로의 일지에 대한 자료도 전시해 두고 있다. 일본은 이렇게 개인 상인이 원하면 독도에 어로활동을 하도록 적극권장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자료에서 한 예를 볼 수 있다.

고 야와타 이사부로(故八幡伊三郎)씨의 일지

- 고 야와타 이사부로의 일지
- 1936년~38년에 함께 4회 죽도에 출어하고 있다.

11) 金到閣(2017)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조작의 실태분석」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95-99

- 일지에는 죽도까지의 항해 시간(11시간 반부터 14시간과 죽도의 날씨, 전복의 어획량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9) (1936년)

야와타 이사부로의 죽도에서의 어업(1) (1936년)			
月·日	어획물	어획량(관(貫),돈(匁))	kg 환산
6月 9日	전복	21관 600돈	81.0kg
6月10日	전복	18관 400돈	69.0kg
6月11日	전복	12관 400돈	46.5kg
6月12日	전복	13관 400돈	50.3kg
6月13日	바다사자(=강치)의 상자담기		
6月14日	바다사자(=강치)의 상자담기		
6月15日	바다사자(=강치)의 상자담기		
6月16日	전복	31관 300돈	117.4kg
6月17日	전복	10관 200돈	38.3kg
6月18日	전복	24관 100돈	90.4kg
6月19日	전복	16관 900돈	63.4kg
6月20日	전복	11관 700돈	43.9kg
6月21日	바다사자(=강치)	23원(願)	
1번째 출어		합계	600.0kg
月·日	어획물	어획량	kg 환산
9月12日	전복	9관 40돈	35.3kg
9月13日	전복	20관400돈	76.5kg
9月14日	전복	26관100돈	97.9kg
9月15日	전복	10관800돈	40.5kg
9月16日	바람 불어 쉽		
9月17日	전복	22관250돈	83.4kg
9月18日	전복	9관돈	33.8kg
9月19日	전복	16관100돈	117.4kg
2번째 출어		합계	427.7kg

(표10) (1937년)

야와타 이사부로의 죽도에서의 어업(2) (1937년)				
月·日	날씨	어획물	어획량	kg 환산
5月31日	맑음	전복	98관600돈	369.8kg
6月1日	맑음	전복	65관돈	243.8kg
6月2日	맑음	전복	35관100돈	131.6kg
6月3日	맑음	전복	42관500돈	159.4kg
6月4日	맑음	전복	25관100돈	94.1kg
6月5日	맑음	전복	15관500돈	58.1kg

		소라	40관돈	150.0kg
6月6日	흐림	바람 불어 쉽		
6月7日	조금 맑음, 흐림	쉽		
6月8日	흐림	쉽		
6月9日	맑음	전복	17관200돈	64.5kg
6月10日	맑음	전복	13관100돈	49.1kg
6月11日	맑음 오후 쉽	전복	10관돈	37.5kg
6月12日	맑음	전복	15관돈	56.3kg
6月13日	맑음	전복	20관돈	75.0kg
6月14日	맑음	전복	20관돈	75.0kg
6月15日	맑음	전복	15관돈	56.3kg
		전복	합계	1,470.4kg
		소라	합계	150.0kg

(표11) (1938년)

야와타 이사부로의 죽도에서의 어업(3) (1938년)				
月·日	날씨	어획물	어획량	kg 환산
5月26日	흐림, 맑음	전복	32관400돈	121.5kg
		소라	26관200돈	98.3kg
5月27日	맑음	전복	16관800돈	63.0kg
		소라	42관700돈	160.1kg
5月28日	비	휴업 서풍		
5月29日	안개(연무), 비	휴업 서풍		
5月30日	안개(연무), 비	휴업 서풍		
5月31日	맑음	전복	22관700돈	85.1kg
		소라	20관600돈	77.3kg
		해삼	1관300돈	4.9kg
6月 1日	맑음 맑음	전복	2관돈	7.5kg
		소라	4관100돈	15.4kg
6月 2日	맑음	휴업 북풍이 불음		
6月 3日	맑음 맑음	전복	12관900돈	48.4kg
		소라	20관200돈	75.8kg
6月 4日	맑음 맑음	전복	15관돈	52.9kg
		소라	관돈	88.9kg
6月 5日	맑음	전복	관돈	8.3kg
		소라	관돈	59.6kg
6月 6日	맑음	휴업 서남풍		
6月 7日	흐림	전복	15관700돈	58.9kg
		소라	55관돈	206.3kg
6月 8日	흐림	전복	5관800돈	21.8kg
		소라	52관100돈	195.4kg

6月 9日	맑음	전복	5관900돈	22.1kg
		소라	17관200돈	64.5kg
6月10日	맑음	전복	7관돈	26.3kg
		소라	50관500돈	189.4kg
6月11日	맑음	전복	13관100돈	49.1kg
		소라	49관800돈	186.8kg
		전복	합계	564.8kg
		소라	합계	1,417.5kg
		해삼	합계	4.9kg

이렇게 야와타 이사부로(八幡伊三郎)의 죽도에서의 어업은 1936년부터 1938년의 3년에 걸쳐 날짜, 날씨, 어획물, 어획량, 환산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시기 중에 발생하였으며 독도에 대한 개인의 어업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독도의 풍부한 해산자원을 식민지 시기 일본사람들이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여 갔다는 증거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해산물 가운데 가장 많이 채취해 갔던 것은 전복이고, 그 다음은 소라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의 식민지시기에 일본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약탈 및 침탈해갔다. 그 가운데 독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여기서 일본인 개인의 독도어획도표를 보더라도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구미죽도역사관에 대한 운영상의 모순점¹²⁾

일본은 1951년 1월 18일, 이승만 평화선(이승만 라인) 이전에는 한국은 독도를 관리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식민지시기에 독도에 어업활동을 한 적이 있으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조작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는 한 포인트이다. 식민지 시기 지배는 일본이 했는데, 지금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침부해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 측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독도는 고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울릉도 거주민들의 대다수와 육지인들이 독도에 어로활동을 했고, 고대시대부터 그 이후 조선시대에도 정부가 관리를 계속했다는 실효적 지배와 관리의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 독도는 한국 땅인 것을

12) 金到閏(2017)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조작의 실태분석」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105-107

일본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알면서도 한국의 독도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식민지 지배 대상 지역도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실효적 지배이다. 국제법학자들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어, 일본문학, 일본학을 연구하는 한국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독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독도연구가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일본연구자 및 신진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구미죽도역사관의 이러한 자료는 일제 식민지 시기의 자료이다. 식민지시기 일본의 자료는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다.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에 의해 무효이다. 일본은 불법으로 당시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속이기 위해서 일본의 일방적인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자료실의 ‘전시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요구된다. 일본은 현재 1905년 독도를 편입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는 예로부터 한국이 지배해 왔고 어로활동과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령인 것을 부정하기 위한 일본의 영토침략 술책인 것이다. 이것은 과거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했든, 편입이라는 거짓 주장을 했든, 이 모든 것은 1867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서양세력에 대한 자주국방 강화와 정한론에 의한 강압적인 식민지를 지배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은 무효이다. 카이로 선언(1943년 11월 27일)과 포츠담선언(1945년 7월 26일)에서 한국식민지는 일본이 불법 통치했다는 확인결정으로 한국이 독립(1945년 8월 15일)되었다. 일본은 편입이라는 구실로 실효적 지배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을 불법지배하면서, 독도에 대한 어업경제권을 침탈한 것이다.

이러한 구미죽도역사관의 자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역사관은 2016년 7월 26일-29일 시마네현을 답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이었고, 독도 연구의 가치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구미죽도역사관에 대하여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침탈하려는 의도로서 조작 및 발언을 해놓은 최근 개관한 자료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다가 패전을 선언한 패전 국가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일본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땅인 독도를 2005년부터 의도적으로 침탈하려고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 등 불법적인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패전한 국가는 침탈한 국가의 땅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라는 한국영토를 빼앗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속내를 일본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일간의 교류를 하면서도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존의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일본사회에 되물어야 한다고 본다.

2016년9월26일 ‘서울 뉴시스’에서는 도쿄(東京)에서 독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전시회를 만들었는데, 한국의 해운항만청 해양수산청에도 독도에 관한 전시와 자료 등이 있다. 일본이 이러한 정부 주도로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은 또한 엄연히 한국령 독도를 더 홍보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한국은 국민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현재에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역사외곡을 바로잡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구미죽도역사관을 통하여 일본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웃나라 한국영토인 독도를 빼앗으려는 불법적인 자료 조작과 발언을 계속해야하는지 일본의 영토침탈 야욕의 진정성에 대해 되묻고 싶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은 일본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되는지 일본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편(2016)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영유권 조 작논리』 경상북도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비매품), pp.2-19(한글 번역문)
- 권오엽외(2010) 『죽도문답』 한국학술정보(주), pp.35-68
- 金到閣(2017)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조작의 실태분석』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 내설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69-112
- 金學俊(2012) 『獨島(ドクト)研究』 論創社, pp.18-51
- 김현수(2009) 『세계도서 영유권 분쟁과 독도』 연경문화사, pp.53-87
- 독도본부(2012) 『일본‘교과서’와 독도위기』 우리영토, pp.20-58
- 방기혁외(2007) 『울릉도·독도 사수실록』 비봉, pp.15-46
- 송병기(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pp.38-59
- 愼鏞廈(2002) 『獨島領有權에 대한 日本主張 批判』 신용하 저작집38, 서울대학교출판부, pp.3-363
- 최장근(2014) 『독도 한국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313-464
- _____ (2016) 「한·일 기본조약을 전후한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인식」 『일본의 영 토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의 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311-383
- 下條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親書377, pp.5-18
- _____ (2005) 『竹島一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縣民會, pp.7-16
- 「Web竹島問題研究所」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
- 「久見竹島歴史館」, http://search.yahoo.co.jp/search;_ylt=A2RhYNMguiFYKTUak5qJBtF7?p=www.shindo.gr.jp/2016/06/kumitakeshimarekishikan - キャッシュ (檢索日: 2016.6.20.)

논문 투고 일자 : 2017. 06. 18.

논문 심사 일자 : 2017.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7. 08. 04.

 < 要 旨 >

 日本の独島領有権の主張に関する現況の分析
 - 隠岐の久見竹島歴史館について -

金到閔

本論文では独島と関連した島根県の資料館の中で2016年6月1日の開館した隠岐の久見竹島歴史館の運営現況について検討した。この久見竹島歴史館は独島に関する地図が展示されているが、「リン鉱石採掘権の鉱区図(謄本)に関する内容」が説明されている。また、1953年12月19日、独島を空から撮影した上空写真の説明があり、日本は1954年の東島の頂上に韓国側が不法的に設置した灯台が映していないことを確認できると無理な主張をしている。また、独島でのアシカ漁業が許可される戦後の占領期を抜き、1905年から1965年までに久見地区の漁民が独島のアシカ漁業のライセンスで作り、1953年からは漁業法に基づいて独島のアシカ以外の漁業(ワカメ、石、寒天、アワビ、サザエ、ナマコ、タコ、ウニ漁業)について島根県知事は隠岐島の漁業協同組合連合会に独島の共同漁業権の免許を交付しており、個人の八幡伊三郎の独島での漁業を(1936年-1938年)日付、天気、漁獲物、漁獲量、換算を記録している。これは日本が韓国を占領する時期の中に発生し、独島に対する個人の漁業活動を詳しく記録して、独島の豊かな海産資源を植民地占領という理由で、日本国民は多くの魚介類を採取して行ったという証拠の資料となるものである。本論文の日本人個人の独島の漁獲に関する図表を見ても独島は韓国領だという証拠を提示する意味になるだろう。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n Claims of Japanese Dokdo Sovereignty:
 About Gumi Jukdo History Museum in Oki

Kim, Do-Eun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the historical museum in Gumi, Oki Island, which opened on June 1, 2016, along with archives of Shimane Prefecture related to Dokdo. The Gumi Jukdo Historical Museum has a map of Dokdo, which explains mining rights, which include the mining of phosphorus. In addition, Japan insists that it can confirm that the lighthouse, which was allegedly installed by the Korean side in 1954, is not illuminating. From 1905 to 1965, the fishermen of the Gumi district licensed the fishermen of Dokdo Island, except for the post-war period, during which Dokdo was allowed to fish on Dokdo Island. Since 1953, Shimane Prefecture has issued licenses to the OkinoSima Fisheries Cooperative Federation for the Dokdo Co-Fishery and the private Yahata Isaburo(八幡伊三郎). It records the date, the weather, the catch, and the conversion of the fishery in Dokdo (over the period 1936-1938).

The Japanese government, through th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at that time, looted everything using all possible means and methods, if there was any benefit to Japan. In this paper, the charts of Japan's individual capture of Dokdo evidently indicate that Dokdo belongs to Korea.